

##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 (건국대학교 조교수)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 JPI 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 목 차

1. 서론: 해양분쟁이 만연한 동아시아, 그리고 한 가닥 희망
2.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
3. 영토분쟁의 핵심요인: 불평등 조약, 이념갈등, 3가지 장애요인
4. 영토분쟁의 타결요인: 국제정치·환경적 요인, 국내정치 (및 리더십) 요인
5. 영토분쟁의 타결에 적용된 원칙
6. 결론: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 1. 서론: 해양분쟁이 만연한 동아시아, 그리고 한 가닥 희망

-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강화되고 있는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은 관련국 간에 평화적 해결방식이 모색되어 갈등해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음.
- 냉전와해 직후 일부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의 과거는 아시아의 미래”라고 예측하거나, 혹은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근거로 근래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결국 양국 간 갈등(혹은 전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영토분쟁이 시간에 비례하여 강화된다”라는 명제를 제시한 해스너(Ron E. Hassner)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임.
- 이들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작금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음.

## 2.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

- 유럽에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 국민국가체제가 성립되고 난 후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풍미하기 전까지는 서양의 동양침탈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 간 영토분쟁은 없었음.
- 그 이전인 1567년 베이징에 도착한 두 명의 코사크족이 중국황제와의 만남을 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을 뿐, 러시아인들은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우랄산맥과 시베리아를 넘어 태평양 연안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음.
-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아무르 분지에 진출한 후에 네르친스크라는 마을을 세우고 모피거래를 위한 교역소와 요새를 설치하였음.

- 1670~1680년대에 발발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쟁은 결국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귀결됨.
  - 이는 근대적 의미의 국경선을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대략적인 경계지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도상의 정확한 구분선이 아니라 산맥과 같은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적인 영유권 분리를 이루는 정도였음.
  - 이로부터 중국의 영토는 1세기 반가량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음.
  
- 서세동점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세기 중반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태평천국의 난에 의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취약해졌음을 타, 러시아는 아무르 분지에 대한 식민지배를 강화하였고, 이전에 네르친스크 조약에 따라 중국의 영해로 규정되었던 오희츠크 해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음.
  
- 1850년대까지는 지속적인 탐사를 통해 아무르 분지에 대한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확립되었고, 저항할 여유가 없었던 중국을 상대로 보다 많은 것을 강탈할 수 있게 된 러시아가 새로운 경계확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 그 결과로 중국은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한반도 북쪽 바다와 중국영토, 그리고 우수리 강이 만나는 지점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음.
  - 그 후 일본이 아시아대륙을 침탈함에 따라 아무르 분지와 우수리 강이 사실상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경계가 되고 말았고, 그 결과 중국은 1912년 공화국으로 체제를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더 이상 북동쪽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게 되었음.
  
- 러시아혁명 이후 1919년 소비에트 정권의 외상 카라한은 과거 러시아 황제가 강탈했던 중국 내의 모든 영토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포기한다는 소련 정부의 입장을 선언했음.
  - ‘카라한 선언’ 당시 소련이 포기한 영토의 상당부분은 새로 수립된 소비에트연방의 통제를 벗어난 반혁명세력(백군)의 지배하에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세력의 일시적인 열세가 만회되자 소련은 카라한 선언을 철회하였음.
  - 중국의 약화로 인해 중·러 간 국경하천의 중국 측 제방에 이르는 소련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중국 측의 이의제기가 없는 틈에, 소련은 강내의 모든 섬을 차지해 버렸음. 이로 인해 소련에 대해 중국인들이 일시적으로 가졌던 호감은 배신감으로 돌변하였음.

*미·중 간 갈등과  
동아시아지역  
해양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러 간 영토분쟁  
해결사례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중·러 간 영토분쟁의  
핵심에는 19세기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과  
스탈린 격하 이후  
이념갈등이 자리잡고  
있어...

- 마침내 중국은 내전을 끝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음.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절박하게 필요로 하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연대의 유일한 돌파구였던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음.
- 말하자면 잠자는 사자였던 중국은 다시 힘을 얻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임. 중국이 힘을 회복하면, 과거에 당하였던 것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음.

### 3. 영토분쟁의 핵심요인: 불평등 조약, 이념갈등, 3가지 장애요인

- 양국의 국경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었고, 영토분쟁은 주로 19세기에 양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기인한 것이었음. 이로 인해 중국이 공산혁명 이후 정권을 안정시키고 점차 국력을 회복하면서 1960년대에 양국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음.
- 냉전 중이던 1969년 우수리 강의 전바오섬(다만스키섬)에서 대치한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전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음.
- 1969년 8월 신장의 중·소국경 서부에서 양국이 대립했을 때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음.
- 과거의 불평등 조약에 기인한 양국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었음.
- 흐루시초프가 1956년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인 이후 중·소 간에는 이념분쟁이 심화되었음.
- 양국의 불협화음은 국내적으로 사회주의를 수립하는데 적용할 방법 및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음.
- 중국 내 지도층의 갈등 속에서 마오쩌둥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관계를 활용한 측면도 있었음.
- 이에 더해, 어떤 이념이 소속원들로 하여금 단일 권위적 리더십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적 운동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역설적이게도 소속원들 간에 갈등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월트(Stephen Walt)의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말하자면, 중국과 소련은 서로를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로 비난하며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투는 형국에 놓였던 것임.

- 이와 같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1969년 발생한 중·소의 전바오섬 충돌사건은 3,000명가량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양국은 긴급회담을 통해 전면전을 겨우 피할 수 있었음.
- 중·소의 갈등은 1971년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미·중이 소련에 대항하여 연합하는 세력구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음.
- 이런 가운데 중·소 양국 간 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1979년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그나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음.
- 이후 중국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내걸었음: ①중국 국경과 몽골에 배치된 소련의 대규모 병력 철수, ②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지, ③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한 소련의 지지 철회

#### 4. 영토분쟁의 타결요인: 국제정치·환경적 요인, 국내정치 (및 리더십) 요인

- 중국은 계속해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문제의 해결을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요구했음. 이때 돌파구가 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고르바초프였음.
-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 이념이 지닌 분열적 성질 때문이라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으로 표방된 ‘신사고’는 동서 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러 간에서도 이념적 경쟁을 종식시키고, 영토분쟁의 장기적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고르바초프는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중국 국경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과 몽골 및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의 철회 등 3가지 조건 중 일부에 대해 타협의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음.
- 고르바초프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떼어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었음.
- 1979년 미·중관계의 정상화에 따라 소련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난국에 처해 있었음.
- 이러한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 곤경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대는 고르바초프와 같은 인물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임.
- 고르바초프는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소련의 입지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임.
- 아무리 국제적, 국내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의 유연하고 타협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면 중·러 간 국경분쟁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중·러 간 이념적  
경쟁을 종식시키고  
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 초석을  
마련...*

**분쟁 중인 영토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양보와  
중국의 타협적 자세에  
힘입어 현재 중·러 간  
국경분쟁은 모두  
해소된 상태...**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을 것임.

-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분쟁 중인 영토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식적 국경은 강의 간천(幹川, main stream)을 따라 규정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음.
  - 이는 러시아가 중국 측 간천의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천섬에 대한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차후 중·러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상호주의’의 시발점이 되었음.
  - 과거에 카라한(그리고 레닌)은 러시아가 침탈한 영토를 중국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함으로써 중국의 원한을 샀지만, 고르바초프가 택한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매우 긍정적 조치였음.
- 이어 1989년 5월 중국과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였음.
  -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주요 영토분쟁의 해결을 향한 상당한 진전이 이미 이루어졌음.
  - 1989년 10월 중국은 첫 번째 양보조치로서 모든 영토분쟁의 ‘포괄적 일괄타결’이라는 이전의 요구를 철회하고, 지역별로 특정의 개별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유연성을 발휘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분쟁대상이 되었던 두 개의 섬을 제외하는 합의에 서명했음. 이처럼 중국의 타협적 자세로 인해 합의에 이르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고, 마침내 1991년 5월 첸치첸 중국 외교부장과 베스메르트니히 러시아 외상이 동부국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음.
  -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이미 합의된 협정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양국은 지속적으로 국경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그 결과가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결된 ‘중·러 동쪽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블라디보스토크 조약)’에 의해 공식화되었음.
  - 양국의 4,300km에 이르는 육상국경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경계획정이 완전히 마무리지어진 것은 2008년 7월 21일에 이르러서였음. 현재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분쟁은 모두 해소된 상태임.

## 5. 영토분쟁의 타결에 적용된 원칙

- 중·러 간 영토분쟁의 타결과정에서 양국은 호혜의 원칙을 준수했음.
  - 이는 구체적으로 양국이 아주 엄격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각각의 구체적 사안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50:50원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나타났음.
- 분할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협상과정에서는 ‘공동사용’이라는 방식도 최종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음.
  - 50:50 원칙이라는 것은 분쟁지역을 반드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법적 해결책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give and take) 정치적 타협을 추구했음을 의미함.
- 사실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양을 침탈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근대 국제법 체계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국경하천들 중 다수는 러시아의 관할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했음. 불평등 조약도 조약이기 때문임.
  - 러시아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중국에 수백 개의 섬을 양보했음.
  - 이러한 ‘원-원’의 이미지는 중국 측의 반발과 민족주의적 감정을 억제시키고 양국이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했음.

## 6. 결론: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해결사례는 그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사건으로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고 있음.
  - 첫째,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과정은 불평등 조약, 제국주의 침탈 등 역사문제의 해결과 그 궤를 같이했음. 중국은 국력이 쇠퇴했을 때 빼앗겼던 것을 고르바초프 이후 대체로 절반 정도는 러시아로부터 되찾았는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역사적 한(恨)을 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 이처럼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는 같이 얽혀있는 것이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든 것임.
  - 둘째, 중·러 사례는 정치적 리더십의 지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인간임을 자각하는 지도자들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민중들의 자각이 필수적임. 고르바초프는 과거 중·러관계를 특징지었던 ‘부정적

*영토분쟁의 타결에 있어서 중·러 양국은 호혜의 원칙을 준수했고 분할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동사용에 합의...*

**역사의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하면  
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 상호주의'를 '긍정적 상호주의'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음.
- 셋째,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원용되었던 50:50 원칙으로 표현되는 공정성, 합리성의 문제는 영토문제의 해결에 중요했음.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동사용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기술적, 법적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 아니라, 정치적 유연성 혹은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임.
  - 넷째, 중·러 영토분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역설 중의 하나는 양국이 영토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의 분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양국의 국경에 분쟁의 원인이 될 만한 수많은 발화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음. 분쟁지역의 수가 매우 많아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었고 '긍정적 상호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임.
-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음. 마르크스(Karl Marx)가 초기저작에서 설파했듯이,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임.
-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혹은 구조)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님. 오히려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또한 가진 것이 인간이며 정치지도자들임.
  -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 악(evil)과 비극(tragedy),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
- 작금의 동아시아 상황은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 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임.

**참고문헌**

윤태룡.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 그 타협의 원칙과 독도.” 「민족연구」 통권 제53호(2013), 46-68쪽.

Fravel, M. Taylor,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Hassner, Ron E. "The Path to Intractability: Time and the Entrenchment of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31, No.3(Winter 2006/07).
- Iwashita, Akihiro. "An Inquiry for New Thinking on the Border Dispute: Backgrounds of "Historic Success" for the Sino-Russian Negotiations," in Akihiro Iwashita, ed.,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the 21st Century: Partners in the "Community of Asia,"* Vol.1 Crossroads in Northeast Asia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2005).
- Maxwell, Neville. "How the Sino-Russian Boundary Conflict Was Finally Settled: From Nerchinsk 1689 to Vladivostok 2005 via Zhenbao Island 1969," *Critical Asian Studies* 39:2(2007), pp.229-253.
- Robinson, Thomas W.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Background, Development, and the March 1969 Clash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6, No.4(December 1972).
- Rozman, Gilbert. *Chinese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 (Palgrave Macmillan, 2010).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ng, Jianwei. "Territorial Disputes and Asian Security,"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p.380-423.
- Yoon, Tae-Ryong. "Learning to Cooperate Not to Cooperate: Bargaining for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Asian Perspective*, Vol.32, No.2(Summer 2008).

#### ❖ 저자 약력

#### ■ 윤태룡

現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고려대 영어영문학과(학사)/정치외교학과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미켈럼비아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국제정치 안보분야)를 취득함.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연구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HK연구교수를 역임함. 주요 연구분야는 동맹이론, 한미일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영토분쟁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Balance-of-Fear Theory and Korea-Japan-U.S. Relations, 1945-1953", "국내외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